



##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

승가원, 동대부중 · 고 돌며 장애인식 개선 교육

“최근 장애인의 분포를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보다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늘고 있다. 일반인들도 모두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승가원(이사장 성관)이 4월 13일 동국대 부속 여중 법당에서 1학년 6반 학생들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월 둘째 주부터 5월 부처님오신 날까지 동대부여중을 시작으로 동대부고, 동대부여고, 동대부중에서 실시된다.

동대부여중에서 시작된 첫 교육에는 장애인 관련 영화 상영, OX퀴즈, 시각각협을 체험이 실시됐다.

원하정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에게 서울대 이승복 교수, 텔런트 신은경 씨, 가수 강원래씨 등의 후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다. 또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기봉은 지적장애, ‘웰컴 투 동막골’의 여일은 정신장애, ‘말아톤’의 조원은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지각협을 체험은 시각과 지각에 장애가 있어 손과 협응(協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손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종이 앞에 거울을 두고 그 거울을 보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원하정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눈에 전달 돼 뇌가 명령을 내려야 행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은 왜 인지능력이 떨어질까요?”라고 질문하며 시각각협을 체험을 실시했다.

색연필로 종이에 그려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모양을 따라 그리던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한나 학생

은 “선생님 제 별에 발이 달렸어요”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신기해했다.

시·지각협을 체험을 한 아이들이 소감을 한마디씩 발표했다.

주자영 학생은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 줘서 감사하다”, 장인선 학생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다”, 김예림 학생은 “장애우들을 차별 없이 보겠다. 승가원에 봉사 활동 가고 싶다”고 말했다.

동대부여중 이학주 법사는 “학생들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자비심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법사는 학생들이 교육 후 장애우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진 경우를 보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1배 100원 108배 서울 조계사에서 4월 14일 봉행된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에서 초하루 및 무진장 스님 취임법회에 참석한 1000여 불자가 108배 하는 모습.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자비나눔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가 동시에 봉행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행사를 통해 각자 108배로 적립된 1만8000원씩을 모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장학금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00여 사찰이 동참해 1억3000여 만원을 모금했다.

글=조동성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광주 청학 스님이 5재 봉행한 까닭

“법정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삶의 씨앗 삼아 수행 정진하는 것이 스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4월 14일 법정 스님 5재가 봉행된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과의 인연을 풀어놓기 보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리고 따르는 실천을 강조했다.

청학 스님은 1997년 2월~1999년 2월까지 김상사 초대 주지를 지냈다. 맑고항기롭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법정 스님과 20여 년을 함께 했다. 오랜 인연이 있었음에도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 입적 전까지 한동안 만날 수 없었다. 청학 스님은 2007년 8월 13일 무각사 주지로 취임한 후 1000일 기도를 입재해 바깥출입을 금했기 때문이다.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의 입적을 조용히 애도해 왔다. 법정 스님 입적과 동시에 무각사 홈페이지에 스님의 입적 소식을 알렸고, 무각사 대웅전에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스님은 “법정 스님에 대한 도리”라며 법정 스님의 5재를 무각사에서 봉행하겠다고 밝혀왔다.

5월 8일 1000일 기도 회향을 앞둔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과의 인연에 대한 말뚝을 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청학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모셔왔지만 곁에서 잘 모시지 못한 사рам”이라며 인연에 대한 말을 아꼈다.

청학 스님은 법정 스님과 함께 했던 맑고항기롭게 활동의 뜻을 살려 광주 무각사에서 사회환경 운동을 펼쳐 왔다. 스님은 ‘맑고항기롭게’ 운동이 구호로 그치는 것을 막고자 스스로 나섰다. 이에 청학 스님은 2009년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재활용 나눔장터 ‘보물섬’을 열었다.

보물섬은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4대 종교와 시민, 단체, 지자체가 무각사 주자장에서 재활용 장터를 여는 한마당이다. 참석자들은 보물섬을 통해 북한동포돕기 헌책 모이기, 청소년 나눔 축제 등 특색 있는 테마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도 장터 참여자들의 수익금 10%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다. 청학 스님은 “재활용과 나눔의 생활이 습관화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소통의 장터”로 자리 잡도록 매회 직접 참여하며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상연 기자

## “4대강 개발 중단... 최소 이용해야”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일 지역회의서 성명서 발표

동아시아 불자들이 4대강 개발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는 4월 5~7일 일본 동경 스키지온칸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포럼에서 4대강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NEB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국제사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은 60여 참가자들은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드는 한국의 4대강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실천하는 불자들에게 마음 깊이 연대한다.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4대강 개발이라는 거대한 사업에 대해 세계불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불자들에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곧 생명이 사는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며 곧 살생이다. 신중한 조사를 거쳐 최소규모로 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 “4대강 사업은 자연형하천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20

여 개의 댐(보)을 만들어 흐름을 막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인공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개발 자립적 발전에 대한 불교의 입장 △전 더 문제와 불교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인권문제 △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의 준비 등을 논의했으며, 4대강 반대 성명서는 한국 참가자의 제

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재미불교학자 이민용 교수, JTS 유정길 공동대표 등 14명이 참가했다.

한편, INEB 2011년 공식행사는 스리랑카에서 열린다. 2013년 공식행사에 앞선 2012년 지역포럼은 대만 혹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 천안함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애도문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6일 애도문을 통해 침몰한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스님은 애도문에서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군 조계함 천안함의 침몰 사고로 희생된 승조원의 극락왕생을 부처

님 전에 기원한다. 혈육을 잃은 슬픔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해드리며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번에 희생된 천안함 승조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왔다.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도 몸을 던진 고(故) 한주호 준위와 금양98호 선원들 또한 숭고한 희생정신의 뜻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보여 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신뢰 있는 조사와 사후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희생자가 죽음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

조동성 기자

- ▶14 선지식-거부 스님 ▶4 인터뷰-김용표 ▶16 강의실-윤창하 ▶9 현장-평화통일순례

“부처님진신사리만다라라는 부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깨달음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바라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極大阿 流眼  
승광사 전지암 조실 환안스님

###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를 형상화한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를 모시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와 같이 부처님의 큰 지혜와 복덕을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건강·합격·취업·스트레스해소 여러분을 소원성취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성화(聖畵)가 만다라이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사리입니다.

만다라와 사리를 함께 표현한 것이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가운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후라존자의 사리를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해 만다라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다라는 불길한 기운을 막아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우주의 신비로운 생기가 걸여놓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이런곳에 꼭 필요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의 서재와 다실
- 건강을 기원하는 가정과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의 공부방
- 계약과 입찰이 많은 건설회사 대표의 집무실
-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바라는 분
- 개업 선물, 승진 선물, 집들이 선물, 불사회향 선물

제품규격

A형 60cm X 60cm, 4kg	B형 80cm X 80cm, 6kg
C형 95cm X 95cm, 10kg	D형 105cm X 105cm, 12kg

불·교·미·다·어·연·구·소

**종오합장**

**바라밀다院**

121-8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92번지 기원 201호  
대표전화 02-3275-0108 핸드폰 010-2022-0108

(제품가격문의)

※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의 모든제품은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점안의식을 봉행한 생명력을 얻은 성물(聖物)입니다